

호남, 5개 산업단지 특성화 개발

산업단지공단, 광주·군산·대불 중심으로 ... 농공단지 곳도

호남지역 산업단지가 5개 권역별 클러스터로 구분해 해당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관내 산업단지를 광주·군산·대불·익산과 농공단지(군산·나주·제주·김제)로 분류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는 6개(광통신·LED·광응용·전자부품·산업기계·정밀금형) 분야, 군산 3개(자동차 부품소재 및 기계금속부품소재·그린부품소재) 분야, 대불은 4개(조선·조선부품·해양레저·해양에너지) 분야, 익산 1개(오토엔일렉트) 분야이다.

농공단지는 4곳으로 모두 18개의 미니클러스터로 구성된다.

5개 클러스터에는 관련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약 900여곳의 회원사들이 참여해 호남지역 자동차부품, 조선·해양산업, 가전산업이 미래산업인 광산업과 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형산업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형 광역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2011년에는 총 사업비 101억원을 들여 5개 클러스터별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도 협력해 고객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조태성 지사장은 “지역경제의 디딤돌인 전남권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호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며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공간이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30>